동해보복법 없이 십자가복음 없다

(레24:15~23)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17.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동해보복법 없이 십자가 복음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동해보복법 없이 십자가 복음 없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잔인한 연쇄살인범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말 할 때에 쉬운 일은 아닌데,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잔인한 연쇄살인범들을 주제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있어서 보다 보면 화나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개연성에 공감이 갑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일 때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가책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즐기면서 아주 잔인하게 서서히 죽이는데, 정의로운 형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너무 화가 나서 연쇄살인범을 때린다든지 죽이려고 할 때든지 자기가 죽을 위험을 당하면 그렇게 아파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비굴할 정도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나 드라마의 피해자에

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법에 호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지만 정의로운 형사는 법에 의해서 재판정에 세우지 않고 자기가 처벌을 해서 총으로 쏴 죽이든지 몽둥이로 때려서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죽인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도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9-20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정말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반면에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무섭지요. 남을 때리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고, 남의 재산을 축내려고 하다가도 주춤하게 되므로 범죄 방지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주님께서 마5:43-44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해보복법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롬12: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옳은지는 알겠지만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 양원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사랑이나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에 대한 것도 해석만 할 뿐이지 삶에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많은 성경해석학자들이 이 동해보복법이 신약 성경의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랑의 법과 모순이 되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된 해석의 보편적 일치점은 '사람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감정이 북받쳐서 보복을 하면 피해를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게 되고 두 배로 되갚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생명존중을 위해서 그랬다'는 해석들을 내립니다마는 동해보복법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보복이 지나칠 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이 똑같다는 것입니

까?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이 되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동해보복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선민의 삶의 제 분야에 관한 법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을 말씀하실 때에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동해보복법이 언급된 맥락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자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15,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돌로 치라'는 말씀이 22절 까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동해보복법이 나오다가 2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사람을 돌로 쳤더라.'라고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 동해보복법이 속해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것과 동해보복법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말씀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마쳐지고 있는데 이 동해보복법을 따로 떼어서 어떻다고 하는 법철학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는 말씀 뒤에 갑자기 동해보복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이름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 마음의 만족의 내용, 기쁨의 이유, 행복의 근거가 되는 이름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그 돈을 실제로 손에 쥐어야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식의 성공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실제로 자식의 성공을 이루어야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행복의 근거이고 기쁨의 이유이고 만족의 내용을 가리키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마음의 지성소인데, 이 자리에 여호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대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서 '자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실제 자식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돈을 벌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내가 낳은 자식을 내 힘으로 잘 키워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세상에 태어나서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잡아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은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의 내용과 기쁨의 이유와 행복의 근거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어떠한가를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닌 선민이 살이 다 찢길 정도로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뜻하는 것은 15, 16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 않고 사업이나 자식을 담는 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해서 죽이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는 것은,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과 등가(等價)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동해보복법을 보면 19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고 나오고, 주님께서는 눅14:25-26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은 내 인격에 대해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다른 대상을 포괄적으로 말을 할 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서까지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눅10:36절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누가 강도 만남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실 때 강도만난 우리의 입장에서의 내 이웃은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이웃인 것입니다.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전혀 맥락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에 불쑥 포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사건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 상태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사건으로 내 첫 번째 이웃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자식은 사랑하고 내 부모는 사랑하고 배우자는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지만, 실제

로 첫 번째 이웃이자 첫 번째 관계해야 될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지 않은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일이고 첫 번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복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분이 이중성을 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오실 때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70억 인구를 대표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과 관계하실 때에는 참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참 인간이시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첫 번째 이웃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분은 동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방향성에서 참 인간으로 나를 대표하며 나와 동일시되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대표할 때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첫 번째 이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고 나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려서 살갗을 다 찢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왜 죄 없는 첫 번째 이웃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과 등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였으므로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는 참 인간이십니다.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대로 죽습니다. 내가 내 첫 번째 이웃인 예수님을 죽인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시고 나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죽인 저 예수님이 곧 나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 주장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똑같은 상해를 입고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대표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가시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신비가 십자가 복음과 동해보복법의 연관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처치하는 과정 중에 불쑥 동해보복법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해를 입힌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웃은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웃입니다. 선민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대신 다른 것을 집어넣은 상태를 환산한 등가라는 것입니다. 달러를 원으로 환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이는 상태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으로 살이 찢기고 조롱당하는 그대로의 죽음을 내가 다 받아야 합니다. 그 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표하시는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뻔뻔스러운 주장을 믿음으로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회복해주시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으라'는 이 동해보복법이 없으면 십자가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이루게 될 십자가 사건을 너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화하라는 것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아무렴은 주님께서 깨달음이 없으시고 판단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원수를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고, 동해보복법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앞뒤로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동해보복법의 정신이 없으면 십자가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돈을 좀 벌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다면 기쁨의 이유가 돈이고 그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돈 때문에 쫓겨나신 것입니다. 사업, 건강, 승진, 권력, 결혼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순간에 내가 내 첫 번째 이웃이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이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때에 그게 여호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면 깜짝 놀라서 내가 또 내 첫 번째 이웃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고, 내가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가 똑같이 당해야하는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대표하시고 나를 대표하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은 자가 어찌 돈에 대해 살아있을 것이며, 자식에 대해 살아있을 것이며, 권력에 대

해서 살아있을 것이며, 결혼에 대해 살아있을 것이며, 건강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 있겠냐며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드디어 마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의 존재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이 동해보복법이 사랑의 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십자가복음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을 알고 인정해야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복음 없이 어떻게 사랑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복음 없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뭔가 계산이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동해보복법의 원리에 의해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만족되어 집니다. 그럴 때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기업이신 하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돌로 나를 쳐 죽여도 내 마음의 기쁨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피해보는 것이 없는데 내 몸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기뻐하므로 이 땅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는 나의 하늘에 있는 기쁨의 원인과 근거에 상해를 입힐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늘에 있는 나의 기쁨의 근거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여겨도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데 원수 사랑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원수사랑은 그저 식은 죽 먹기 입니다.

동해보복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첫 번째 이웃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음으로, 그대로 내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간을 대표하시는 분이셨기에,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으로 내가 주장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동해보복법과 십자가복음과 사랑의 법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참!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죄인들로서는 감히 접근이 불가한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동해보복법과 십자가복음의 신비한 연관성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함으로 십자가복음을 철저하게 받아들여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